

< 2022년 교회표어 >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신16:11, 막1:15, 행2:47)

다른 생명도 나눠가진 하나님의 축복

- 사도신경
- 찬 송 588장
- 기 도
- 성경본문 [창세기 1:20~22]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 삶 나누기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생태계를 보며 걱정되거나, 마음 아프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서론: 어떻게 하면 영적 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을까요?

생명 감수성은 어느 생명이 느끼는 감정, 느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것에 건강하게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감수성이 없거나, 대단히 낮은 사람을 영적으로는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건 다른 생명이건 그 생명이 가진 정서에 교류하고, 반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곧, 백성들이 배가 고파 주리고, 목자 없이 떠도는 것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주님은 엄청난 영적 감수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백성의 고통이 자기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온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타자에 대해 민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영적 감수성을 갖게 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함께 한껏 흐드러지게 웃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아 영적 민감성이 풍성해지면 공감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프란체스코가 그랬듯이, 인간 뿐 아니라 피조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울은 로마서 8:23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피조물의 탄식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무슨 탄식을 들은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나타날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19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피조물의 고통을 느끼는 이 감수성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온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민감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의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뿜어내고 있는 배기가스, 이 인류의 편리를 위해 만든 문명의 흐름이 하나뿐이 지구를 엄청난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거기에 인간 뿐 아니라, 아무 죄도 없이 수없이 많은 생명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리를 위해 수많은 생명이 죽어 가는데, 나는 아무 죄책감이 없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집니다.

많은 환경론자들은 생태계가 엄청난 위기를 겪는 원인 중의 하나가 기독교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중심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 모든 지구적 환경을 예비해서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안에 두셨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 짓고 그 안에 살림을 다 만들어 놓고 침대도 폭신하게 준비해 놓고 주인이 그때 와서 사는 것과 같다는 식입니다. 생태론자들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요, 그 주변으로 동물과 식물 등 피조세계가 구성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17세기에 근대가 시작된 이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라는 말씀을 인간이 전생태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으신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은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려고 물을 만드셨습니다. 곧, 자연이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22절 말씀(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빛으신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받았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경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다른 피조물의 생명권을 파괴하고 말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를 갖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인간의 개발로 다른 피조물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면, 다른 곳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8(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에서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섬기고 돌보며 경영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경영하여서,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하듯이 인간의 다스림으로 자연이 복을 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식 속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태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신앙을 이렇게 인간중심으로 해석해 왔는가? 성경을 자기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성경을 제단하고, 신학을 만들고, 취사선택하다 보니 이 창조신앙을 인간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다른 피조물을 살육하고 결국 이 하나뿐인 하나님의 동산인 지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 지구의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의 그릇된 자연관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동산인 이 지구의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공존, 공생, 공영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면지를 꼭 활용해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복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나무라는 생명을 몇 천 그루 죽여서 얻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나타났어!” 라고 피조물이 감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1.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에서 ‘다스린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 위임받은 지구의 정원사로서, 생태계를 향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